



22132041



KOREAN A: LANGUAGE AND LITERATURE – HIGHER LEVEL – PAPER 1
CORÉEN A : LANGUE ET LITTÉRATURE – NIVEAU SUPÉRIEUR – ÉPREUVE 1
COREANO A: LENGUA Y LITERATURA – NIVEL SUPERIOR – PRUEBA 1

Wednesday 8 May 2013 (morning)

Mercredi 8 mai 2013 (matin)

Miércoles 8 de mayo de 2013 (mañana)

2 hours / 2 heures / 2 horas

INSTRUCTIONS TO CANDIDATES

-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.
- Section A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.
- Section B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.
- Choose either Section A or Section B. Write one comparative textual analysis.
-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*[20 marks]*.

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

- N'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'y être autorisé(e).
- La section A comporte deux textes pour l'analyse comparative.
- La section B comporte deux textes pour l'analyse comparative.
- Choisissez soit la section A, soit la section B. Rédigez une analyse comparative de textes.
-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'examen est *[20 points]*.

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

-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.
- En la sección A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.
- En la sección B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.
- Elija la sección A o la sección B. Escriba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os textos.
-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*[20 puntos]*.

Section A 나 Section B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.

SECTION A

1. 다음의 두 글을 비교·대조 분석하십시오. 두 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, 글의 전체 맥락과 독자, 글의 목적의 중요성, 형식과 문체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쓰십시오.

본문 1



본문 2

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손희정 프로그램머

“이주여성¹에 자신을 표현하는 영상 언어² 제공”

이주 여성 영화제작 워크숍의 기획 의도는?

- 크게 두 가지이다. 우선 이주 여성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영상 언어를 주고 싶었다.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 이주 여성의 삶을 보여 주고 싶었다. 사람들의 인식³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으로서 기획했다. 결과물들은 DVD로 만들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.



부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이유는?

- 시민 단체⁴에서 진행하는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초점이 대부분 이주 여성 교육에 맞춰져 있더라. 이런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의식이 고양되고 평등을 지향하게 됐는데 정작 남편, 가족들에게는 그들과 교감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없었다. 이주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소통⁶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.

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나?

- 워크숍이 끝난 후 모든 부부가 “서로 잘 이해하게 되었다”고 했다. 올해 참가한 아내들은 한국에 온 지 1-2 년밖에 되지 않아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이제까지 깊은 소통이 어려웠었던 같다.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도 이런 과정을 통해 화해할 수 있었다. 남편은 화면에 찍힌 아내의 불만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, 아내는 어떻게 불만을 표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. 한국에 사는 고통을 치유하게 되는 계기도 된 것 같다.

이 워크숍의 장기⁷ 목표는?

- 작년 워크숍에 참여했던 히로코라는 여성은 미디어 활동가가 되었다. 이주 여성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장기 목표이다. 여러 시민 단체들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이 단발성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.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.

<http://weekly.hankooki.com> (2009)

¹ 이주 여성: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집을 옮긴 여성, 이 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살러 오는 여성을 말한다

² 영상 언어: 스크린이나 모니터에 나오는 그림, 이미지

³ 인식: 생각

⁴ 시민 단체: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단체

⁵ 교감: 서로의 생각이나 움직임을 느끼다

⁶ 소통: 생각이나 뜻이 통하다

⁷ 장기: 오랜 시간

⁸ 단발성: 일회성,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

SECTION B

2. 다음의 두 글을 비교·대조 분석하십시오. 두 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, 글의 전체 맥락과 독자, 글의 목적의 중요성, 형식과 문체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쓰십시오.

본문 3

5	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들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
10	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도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도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
15	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

정호승, 내가 사랑하는 사람 (2000)

본문 4

5 내게는 사람의 느낌을 색으로 구분하는 습성이 있다. 살아가면서 수없이 스쳐지나간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밝은 노란색을 닮았고, 또 어떤 사람은 칙칙한 회색으로 기억되며, 또 어떤 누군가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² 뿌연 안개 빛깔로 기억되기도 한다. 회색이라고 다 같은 회색도 아니다. 흰색과 검은색 사이의 수없는 회색들 중에는 조금은 우울하지만 따뜻한 기분이 드는 그런 회색도 있고, 무겁고 지중하고³ 사려깊은 회색이 있나 하면, 도대체 속을 알 수 없고 바라보면 마음이 끝없이 칙칙해지는 그런 회색도 있다.

10 개인적으로 나는 밝은 노란색이나 밝은 초록색 같은 사람이 좋다. 속이 말짱게⁴ 들여다보이면서 경쾌하고 순수한 사람, 좀 가벼운 게 흠⁵ 이라면 마음 깊은 바닥에는 짙은 카키색의 중심 하나 지니고 있는 사람. 하긴 이 세상에 완전한 피조물⁶ 은 없을 것이다.

15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짙은 초록색인데 속은 빨간 수박 같은 사람이다. 수박처럼 시원한 맛이라면, 그리고 그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 있는 연하고 야들야들한⁷ 속살 같은 품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?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, 짙은 환상적인 스카이 블루인데 속은 그 색이 너무 탁해서 헛갈리는 사람은 그냥 눈 감으며 지나치고 싶다. 그 곁에 오래 머물다간 내가 가진 고운 색깔마저 탁해질지 모르니까.

황주리, *세월* (2005)

¹ 칙칙하다: 어둡고 무겁다
² 종 잡을 수 없다: 예측할 수 없다, 알 수 없다
³ 지중하다: 점잖고 무게 있다
⁴ 말짱다: 산뜻하고 맑다
⁵ 흠: 부족한 점, 잘못된 부분
⁶ 피조물: 신에 의해 만들어 진 것,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
⁷ 야들야들하다: 부드럽다